



■ BTS 월드투어 ‘아리랑’ 현장

“BTS로 하나돼”... 아미가 점령한 브뤼셀

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서 6만5000팬 집결
‘콩나물 시루’ 된 브뤼셀 지하철... 2배 증편해도 계속 만원
개찰구 통과 기다리며 폐창도... 공연장 앞 한식도 인기

1일(현지시간) 오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후 첫 벨기에 공연이 열린 브뤼셀 보두앵 국왕 경기장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보두앵 경기장행 6호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시내 한 역에서 계속 기다렸지만,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는 벌써 몇 대째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했다.

차마 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수차례 열차를 그냥 보낸 한 노신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나고 문자, 인파 정리를 위해 나와 있던 브뤼셀 대중 교통회사 STIB 직원은 “BTS 때문에 지하철 편수를 2배 늘렸는데도 이 지경”이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기자에게 지하철 문이 잘 안 닫히니 가방을 조심하라고 말을 붙인 20대 커플 에프릴과 남자친구 알렉스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BTS 공연을 보러 왔다고 했다. 필리핀 출신인 에프릴은 8년 전 마닐라에서 BTS 콘서트를 챙겨 볼 정도로 골수팬이었다. 이들 커플은 당초 오는 6~7일 런던 공연을 보러 가려 했으나 예매에 실패해 차선책으로 브뤼셀을 택했다며, 런던보다는 호텔비가 다소 덜 들 것 같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지상으로 빠져나가는 데까지도 족히 20여분이

걸렸다. 그러나 아미들은 불평 대신에 ‘아리랑’ 등 BTS 노래를 함께 부르며 흥을 발산했다.

개찰구 앞에서 대화를 나눈 핀란드의 18세 고교생 로니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BTS 노래를 듣고 자랐으며, 3년간 용돈을 모은 끝에 BTS ‘직관’이라는 꿈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입장까지 아직 한참 남은 시점이었지만, 경기장 앞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다. 갓과 도포에 고무신까지 착장한 젊은 남성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길래 혹시 한국인인가 싶어 가보니 26세의 벨기에 청년이었다. 브누아라고 이름을 밝힌 이 남성은 작년에 한국에 갔다가 고궁에서 한복에 매료됐으며, 도포는 최근 파리에서 구입했고 갓은 한국으로 주문을 넣어 배송받았다고 말했다.

한글로 손수 ‘브뤼셀’이라고 적은 티셔츠를 입고 있던 중년 여성 베로니카(53)는 25살 난 딸 사론을 보디가드 삼아 나올 전 이탈리아 피렌체를 떠나 브뤼셀에 도착했다고 했다. 자신이 딸보다 BTS를 훨씬 좋아한다고 밝힌 그는 BTS 덕분에 난생 처음 브뤼셀에 와봤다며, BTS가 유럽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라질계 스웨덴인 세드릭은 공연



1일(현지시간) BTS의 공연에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온 팬.

연합뉴스



콘서트장 앞에 들어선 한식 스트리트 푸드 판매점. 한복 입고 BTS 콘서트에 온 벨기에 팬.

연합뉴스

장 앞에서 ‘ARIRANG’ 영원이 함께 BTS’라는 문구를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뒷면에는 “우리는 이 종이로 BTS 멤버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습니다. 콘서트에서 우리 모두 아리랑을 부를 때 이 종이를 들어주세요”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아기 때 스웨덴으로 입양된 한국계 아내를 따라 아미로 입문했다는 그는 직접 인쇄해 온 전단지 4만장

을 배포할 요량으로 일찌감치 공연장에 도착했다면서 “한국 피를 이어받은 아내의 영향인지 아리랑을 들으면 한국인들이 느끼는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브뤼셀 현지 한국 식당이 공연장 앞에서 판매한 김밥, 떡볶이, 양념 치킨 등 한국식 스트리트 푸드에도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 한식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연합뉴스



드라마 ‘결혼의 완성’ 남궁민(왼쪽)·이설.

연합뉴스

“결혼의 완성”, 처음부터 좋은 느낌” 남궁민, 아내 찾는 의사 역... “사람들 즐겁게 할 작품”

남궁민은 업계에서도 작품 보는 눈이 좋은 배우로 손꼽힌다.

여러 작품을 줄줄이 흥행시켰고, 그중 2020년 ‘스토브리그’, 2021년 ‘검은태양’, 2023년 ‘연인’으로 세 차례 연기대상을 차지했다.

‘결혼의 완성’은 이런 안목을 지닌 남궁민이 차기작으로 선택됐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남궁민은 지난 1일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에 자신이 있을 것 같아서 자신에 차 있다”고 말했다.

대본을 읽은 첫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처음 읽었을 때부터 느낌이 왔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4회 대본을 쉬지 않고 쭉 읽었다. 대본이 재미있고 독특하다”고

소개했다.

4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하는 ‘결혼의 완성’은 이혼 직전에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 사투를 벌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설은 강태주의 병원 이사장이자 그의 아내 고세윤 역을 맡았다.

그는 “(남궁민과) 작품을 하게 돼 편안했다. 선배님의 열정을 가까이서 엿보며 많이 배웠다”며 “쉬는 날마다 같이 대본 읽고 싶다”고 귀찮게 했는데 흔쾌히 맞춰 주셨다. 같이 대본을 읽었던 시간이 귀했다”고 돌아봤다.

김대명은 고세윤을 납치한 뒤 거액을 요구하는 동네 컴퓨터학원 원장 노만희 역으로 섬뜩한 악역 연기를 선보인다.

그는 “이 드라마를 통해 배우 무더위와 싸우면 좋을 것”이라며 “올여름에 볼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라고 했다.

연합뉴스

가요계 소식

▷최유리 새 미니앨범=싱어송라이터 최유리가 오는 9일 새 미니앨범 ‘머무름, 둘’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네이브가 2일 밝혔다.

‘머무름, 둘’은 지난해 공개한 앨범 ‘머무름, 하나’를 잇는 연작 음반이다. 신보에는 타이틀곡 ‘막사랑’을 비롯해 ‘도약’, ‘상대적인 이유’, ‘폴꽃’, ‘유하’, ‘바닥’, ‘독백’ 일곱 곡이 수록된다.

전날 공개된 ‘막사랑’ 티저 영상에는 그룹 갓세븐 출신 박진영이 출연했다.

▷육중완밴드가 건네는 위로 ‘어쩔건데’=육중완밴드가 2일 낮 12시 신곡 ‘어쩔건데’를 발표했다

소속사 록스타뮤직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어쩔건데’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다.

육중완밴드는 ‘실패하면 어쩔 건데? 실수하면 어쩔 건데?’라며 듣는 이를 유쾌하게 위로한다.

▷일삼공공, 기리보이와 신곡 ‘헤드록’=얼터너티브 힙합 그룹 일삼공공(1300)이 2일 낮 12시 신곡 ‘헤드록’ (Headrock)을 발표했다

고 유니버설뮤직코리아가 밝혔다. 일삼공공은 호주 시드니를 거점으로

로 활동하는 한국계 팀으로, 달리·너디·라고·고요·포카리 5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실험적인 사운드를 앞세워 두 차례 호주 투어를 매진시키는 현지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신곡 ‘헤드록’은 ‘팬팡에 헤딩’이라는 관용구에서 제목을 딴 곡으로, 멤버들은 끝까지 부딪혀 나가겠다는 투지를 노래했다. 가수 기리보이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JTBC ‘아는 형님’ 등 월드컵 편성으로 휴방

JTBC가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을 휴방한다고 2일 밝혔다.

4일 편성됐던 ‘아는 형님’은 ‘북중미 월드컵 골 모음’으로 대체된다. 예정된 방송은 11일로 미뤄졌다.

JTBC는 예능의 연이은 휴방과 관련해 “북중미 월드컵 편성에 따

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JTBC는 최근에도 같은 이유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2주 연속 휴방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엔 웹 예능 ‘할명수’ 녹화를 취소했고, 드라마 ‘연애의 재발견’도 한 달간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결정이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시작된 중앙그룹의 회생 사태 영향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송 영 훈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원읍 前읍장 동우회

회장 김 승 만 총무 현 중 시
장덕보 양방욱 현기호 김두식 김동배 강순홍 오금자 현학수 강문철
강익주 양동석 오남선 고철환 현창훈 오성한 현은정 정창용

취 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송 영 훈

(정가공파 32세)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산송씨 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

회 장 송 성 군 외 종친 일동

선 정

국제명인명장 (전기명장)



이 봉 만

국제명인명장(전기명장)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중문로타리클럽

회 장 양 혁 동 외 회원 일동

취 임

제주소방서장



고 정 훈

[부: (故)고을윤·모: 오윤순]

명예로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친 족 일 동